

江戸時代韓國文獻日本刊行研究(1)

柳 鐸 一*

차 례

- | | |
|---------------------|--------------------|
| I. 序言：問題의 所在 | III. 時代別 內容別 概觀 |
| II. 江戸時代 韓國文獻 受容 樣相 | 1. 時代別 |
| 1. 原狀收藏 | 2. 內容別 |
| 2. 改刊鑿刻 | IV. 江戸時代韓國文獻日本刊行總錄 |
| 3. 變改受容 | V. 餘言 |
| 4. 竊案翻譯 | 附：參考文獻 |
| 5. 唱和交遊 | |

I. 序言：問題의 所在

문화 전파라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문헌을 자기 나라에서 간행한다는 것은 문화 교류의 실증적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문화의 원류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일본문화에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이렇다고 실증을 해가며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조선조에 이르러 일본문화에 준 영향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구체적 실증적 해답에 궁색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기간에 있었던 문화교류에 대하여 우리측에 이루어진 연구성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통신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일본이 조선조 초기부터 사신을 보내어 불경 및 기타 문헌을 청구했던 사례는 이루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임진왜란 때 우리의 귀중한 문헌을 약탈하여 가져간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금속활자와 그 주자장까지 데려가 필요한 책을 간행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던 것이다. 더구나 일인들이 우리의 문헌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간행하고 보급하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국의 문화인자가 일본문화 속에 깊숙이 숨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일인이 자국에서 간행한 우리의 문헌을 읽음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경험했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 한국적인 인자가 잠복되어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국 문헌 일본간행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필요와 동기로 우리의 문헌이 간행되었고 그 영향은 어떠한가를 발신국인 우리측에서 하나하나 캐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한 개인의 힘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과제임엔 틀림없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한국문헌이 일본에서 간행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헌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어떠한 필요에서 간행되었으며 어떻게 보급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해답을 위한 선행과제는 일본에서 어떠한 문헌이 간행되었는가를 폭넓게 조사하여 제일 먼저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 각본의 개별적 분석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폭넓은 목록작성에 목적을 두고 강호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문헌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그 양상을 대충 살펴보고 이어 시대별 내용별로 개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필자는 이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을 통감하여 80년대 초부터 틈틈이 관계문헌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83년 85년 그리고 94년 96년 97년 5차례를 도일하여 일본의 각 도서관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우선 여기 보이는 목록을 만들게 되었다. 83년에는 한달 동안 일본에서 조사화인된 것을 「한국본일본간행목록초탐」이라하여 발표도 하였고 94년 7월 환태평

양국제회의(於神田外國語大學)에서 일본판 『金鰲新話』에 대하여 출판양상과 유통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이런 조사과정에서 얻어진 크고 작은 흥미있는 것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주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관과 총목록만을 제시하고 그런 문헌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연구 되는대로 두고두고 발표할 것이다. 이 방면의 관심자의 관심과 동참을 위하여 이 목록을 만들어 1차적으로 발표한다.

Ⅱ. 江戶時代 韓國文獻 受容 樣相 概觀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 모두 104종이 되지만 내 개인의 조사였기로 절대 숫자는 아니다. 이들 문헌의 서발을 근거로 그 간행동기를 밝혀야 하지만 그 문헌들의 序跋을 모두 갖추기란 많은 시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둔다. 다만 文獻受容이란 문헌학적 입장에서 그 양상을 개괄하고자 한다 순수 한국인 저술 문헌과 한국간행 중국문헌이 주가 되는데 『詩人玉屑』같은 것은 중국인 저술인데 일본서 간행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간행하였고 다시 그것이 일본으로 역류하여 일본서 다시 간행되었다. 이와같은 판본원류 규명은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고 여기서는 原狀收藏 改刊繙刻 變化受容 繙譯繙案 唱和交遊 등 이 네 항목으로 한정하여 개관할 것이다.

1. 原狀收藏

이는 자기네의 필요에 의해 수집하여 보관해두고 필요한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수집방법은 請求輸入 奪取移送 個人蒐集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구수입은 정당한 경로를 이용하여 우리 정부에 청하는 것이다. 조선조전기의 王朝實錄을 보면 주로 불경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사정상 요구대로 다 주지는 못했고 선택해서 주기도 했다. 그런데 임진란 때는 그들은 그들의 낙후된 문화를 높이기 위해 우선 陶器工 글

자 만드는 鑄字工 등 기술인력을 납치해 가고 우리의 문헌을 그대로 탈취이송해 갔었다. 지금도 당시 탈취해 갔던 한국문헌이 보배롭게 나고야의 蓬左文庫 등 각 도서관에 남아 있다. 그뿐 아니라 한말일제 초기에도 많이 탈취해 갔다. 이런 무상 탈취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수집해 간 것도 무수하다. 『奉使日本時見聞錄』(영조 24년 4월23일자) 보면 『懲忿錄』 『攷事撮要』 『輿地勝覽』 『兵學指南』 『通文館志』 등 국가 사정을 알 수 있는 문헌이 동래부의 訓導(사역원 9 품직) 別差(왜인과 무역하는 시장에 보내는 역관)에게 뇌물을 주고 받아온 사례도 있지만 개인수집으로는 개화기 당시 일본 우리말 통역관인 前開恭作의 수집본은 지금 일본국립도서관 東洋文庫에 수장되어 있으며 당시 조선사 편수관이던 今西龍의 수집본은 일본 천리대학 경도대학 도서관에 있고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小倉進平의 수집본은 동경대학에 수장되어 있다. 이같이 우리의 문헌을 내용이나 형태를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그 귀한 문헌을 비용을 주면서 열람할 때마다 속으로 터지는 분통을 참아야했던 일 어찌 나 하나뿐이었으랴.

2. 改刊 覆刻

이는 외래문헌을 받아 들일 때 내용은 변개하지 않고 그 형태나 형식을 자기화하여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때 일어나는 방법은 베껴서 사본으로 하는 방법과 인본으로 간행하는 2 가지가 있게 된다. 寫本의 경우는 개인의 수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대량유통은 되지 않는다. 사본유통의 예를 들면 1599년에 일본의 포로가 된 姜沆을 시켜 베껴서 만들게 한 四書五經 小學 近思錄 近思續錄 近思別錄 通書 正蒙 등 소위 『姜沆彙抄十六種』인데 이는 지금 일본 內閣文庫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외래문헌을 출판할 때는 대량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화전파의 매체로서의 기능은 대중성을 얻게 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가 예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출판현상인 것이다. 때문에 개간 복각된 문헌은 중요한 것이다. 일본인의 한국문헌 수용은 거의 90%가 개간 복각으로 하였다. 손쉬운대로 예를 든다면 『金鰲新話』(개간 1653) 『東人詩

話』(개간 1687) 『懲愆錄』(개간 1695) 『許蘭雪軒集』(복각 동래간본) 『入學圖說』(개간 1634) 『禪家龜鑑』(개간 1678) 등 매거할 수 없다 (남은 것은 뒤에 붙은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3. 變改受容

변개수용은 외래문헌의 내용을 변개하여 自國化하여 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2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즉 하나는 문틀은 그대로 두고 本文을 자기네 것으로 바꾸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저술 속에 抄入하는 것이다. 자기네 것으로 바꾸는 표절의 예로는 松下見林(1637-1703)이 우리나라 선조 때 朴世茂가 지은 『童蒙先習』 가운데 뒤에 붙은 우리의 역사편을 빼어 버리고 자기네 일본역사로 바꾸어서 『神國童蒙先習』(1693)이라고 간행하여 兒童教育教科書로 사용하였다. 松下見林의 이름은 敬一 또는 秀明 字는 諸生 通稱 見林이라 하고 호를 西峯散人이라 한다. 아버지 見朴은 醫員이며 大阪 天滿街에서 태어났고 일본 儒學의 중흥자인 伊藤仁齋와 동시대 사람으로 저서가 49종에 달하는 大學者이다. 長崎에 외국 선박이 오면 외래서책을 사들였고 藏書가 십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 見林은 외국서적에 기록된 일본 기사를 뽑아 일본의 역사사실과 對比 論及한 『異稱日本傳』(15책 1688)을 저술 간행하였다. 이 속에 한국서적이 15종이나 抄入되어 있다. 그 실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卷下之逸：『東國通鑑』(徐居正)
- 卷下之二：『東國通鑑』(徐居正)
- 卷下之三：『三國史記』(金富軾) 『三韓詩龜鑑』(趙云訖) 『慕齋集』(金安國) 『東文選』(徐居正) 『晉山世稿』(姜希顔) 『東人詩話』(徐居正) 『三綱行實圖』(倪循) 『續三綱行實圖』 『太平通載』
- 卷下之四：『經國大典』 『大典續錄』 『神應經序』 『海東諸國記』(申叔舟) 『懲愆錄』(柳成龍)

이상 15종의 문헌이 초입되어 있다. 伽倻 任那說도 바로 이 책 속에 언급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문헌이다.

3. 翻譯 翻案

이는 이미 형성된 문헌을 다른 언어체계로 전환한 표현을 말하는데 번역은 그 내용 그대로 언어의 체계 변환 표현이요 번안은 골격만 유지하고 표현기교를 완전히 달리 전환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崔傳의 『漂海錄』을 1769년 『唐土行程記』라 하여 日語로 간행된 것은 번역이었고 金時習의 『金鰲新話』의 일부 이야기를 『伽婢子』로 淺井了意가 翻譯한 것은 翻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한국 문헌을 번역 번안 것은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唱酬交遊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交隣政策으로 通信使의 내왕으로 인하여 和詩나 筆談으로 생겨난 문헌을 양국 각각 간행된 바 있는데 일본서는 그 기록들이 한국의 문학적 체험과 새로운 지식의 섭렵이란 뜻에서 즉시 즉시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문헌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체험은 아니지만 외래문화의 現場的 體驗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문화교류의 현장에서 생성된 것임으로 굳이 여기 붙여 두는 바다. 이렇게 이루어진 唱酬錄은 『兩館唱和錄』(1719) 『桑韓瑱簞集』(1720) 『和韓唱和錄』(1748) 『桑韓筆語』(1764) 『鷄壇鸚鳴』(1764) 『鷄林唱和集』(1772) 『和韓唱和集』(1719) 등 거의 수십 종이 넘는다. 이런 일본측 문헌은 한국인이 철저히 연구하여 당시 한국의 文化因子가 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잠복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Ⅲ. 時代別 內容別 概觀

이는 아래에 보이는 목록을 근거로 시대별 내용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같은 책이 2회이상 간행된 것은 첫번 간행 연대를 기준하고 여러 번 간행된 횟수는 합산하지 않았다. 이는 목록이 완성되면 시간을 두고 다시 만들어 세밀히 살펴 볼 것이다.

〈日本江戶時代韓國日本刊行 時代別內容別統計〉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未詳	合計
	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七 書 類	1	2								3
*儒 書 類		3	8	21	1		1	1	2	37
*佛 書 類			1	3	1	1	1		1	8
*道 書 類				1						1
*醫 書 類		1	2	3	4	2	1	2	3	18
*兵 書 類					1					1
*史 書 類	1		1	3			2		1	8
*字 書 類			2						3	5
*文 學 類			2	4	3	2			3	14
*農 書 類						1				1
*叢學圖書類				5						5
*其 他			1	1					2	4
合 計	2	6	17	41	10	6	5	3	15	105
世紀別合計	8		58		16		8		15	105

1. 時代別概觀

위의 통계를 근거로 하여 시대별 특징을 살펴 볼 때 전간행의 58%가 17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바로 임난이후 幕府시대에 새로운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자기화하는 당시 일본의 문화적 상승의 욕이 팽배했던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8세기에 들면서 급강하여 전체의 14%로 내려 오고 19세기에 들면 다시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7% 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17세기가 일본문화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退溪의 朱子學을 받아 들여 그들 문화창달의 기틀을 삼았던 것이다. 이같은 문화적 학술적 이해는 당시 일본 역사와 더불어 세밀히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 豊臣秀吉이 임난 때 활자 만드는 鑄字匠을 납치해 가서 쉽게 출판할 수 있는 활자를 만들어 문헌을 출판하였으니 당시 일본의 출판 인쇄기술의 측면에서도 감안해 볼 과제이기도 하다.

2. 內容別概觀

105종의 것을 내용별로 보았을 때, 儒書類가 37종(35%) 醫書類가 18종(17%) 文學書가 14종(13%) 그리고 佛書類와 史書類가 각각 8종(8%) 순으로 나타난다.

儒書類가 전체 간행의 35%를 차지하고 각 世紀마다 이어서 간행되었다는 점은 16세기 이후 일본의 朱子學이 사회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자학 이해의 기본도서인 퇴계의 『朱子書節要』(20권)이 1656년, 1671년, 1709년, 1871년 4차례나 중간된 것을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醫書類가 18종 2위를 차지한 것은 民生次元에서 優位의 의술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이다. 16세기 이후 꾸준히 간행되었고 주로 중국인 원저 한국본의서가 많지만 한국인 저술인 『東醫寶鑑』(1724)을 비롯하여 許任이 만든 침술서인 『鍼灸經驗方』(1725) 뿐만 아니라 『馬醫方』 『牛醫方』 같은 獸醫書도 간행되었다.

文學書類는 14종(13%)인데 이 중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멸되고 없는 김시습의 『金鰲新話』(1653)가 序跋없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후 1673년, 1884년 3번이나 간행되었다. 또 吏文學官 林筮가 주석한 『剪燈新話句解』(1648)를 간행하고 고려 趙云佐이 편한 『三韓詩龜鑑』(1698) 徐居正이 지은 『東人詩話』(1687) 許蘭雪軒의 『蘭雪軒詩集』(1711), 이름은 알 수 없으나 菊軒이란 호를 가진 사람이 지은 『詩人要考集』(1668) 시 이론집인 『詩人玉屑』(1639) 등 주로 17, 8세기에 출판되었다.

佛書類는 여기 나타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필자 개인의 조사에 얻은 숫자이지만 17세기 이후 맥을 이으며 간행되었고 특히 고려 때 一然이 만든 『曹洞五位秘訣』(1680)과 고려 義天이 만든 동북아시아 佛書目錄인 『新總諸宗教藏總錄』(1693) 고려 諦觀의 『天台四教義』(1626)가 간행되었음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歷史關係 書籍인 史書類는 8종이지만 그 중 4종은 17세기에 간행되었다. 壬亂 체험 저술인 柳成龍의 『懲愆錄』(1695)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1849)을 비롯해서 徐居正이 지은 우리나라 通史인 『東國通鑑』(1667)도 全秩이 간행되었고

이는 松下見林이 지은 『異稱日本傳』(1688)에도 抄入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柳希齡이 지은 『東國史略』(간년미상)도 간행된 바 있다.

兒童教育教科書는 5종이 모두 17세기 후반에 간행되었는데 韓石峰 『千字文』(1674)이 복각되었고 朴世茂의 『童蒙先習』은 『神國童蒙先習』(1693)이라 하여 자기네 실정에 맞게 改刊하였다. 貝原篤信이 편한 『千字類合』(1692)은 柳希春의 舊本 『類合』을 24류로 나누고 제목을 붙여 간행하였는데 왜 '千字'란 말이 붙었는지 자못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栗谷의 『擊蒙要訣』(1658)은 아무런 序跋도 없이 그대로 간행하여 사용하였다.

農書는 『朝鮮人蓼耕作記』(1764)인데 우리나라 인삼 재배 기술을 기록한 것이다. 道家書 1종은 1550년 慶州府에서 간행한 것을 복각한 『懼僊活人心方』(1653)이며 기타의 것은 여기 생략한다.

IV. 江戸時代韓國文獻日本刊行目錄

<일러두기>

- * 이는 壬亂이후 甲午更張이전까지 韓國文獻이 일본서 간행된 日本文獻의 목록이다.
- *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 序跋은 번거로워 생략하고 日本人의 序跋은 조사되는 대로 붙여 두었다.
- * 이 文獻目錄에 인용한 문헌의 略號는 아래와 같다.

- 1 <三-朝> : 『朝鮮醫書誌』 三木 榮 著 (日, 學術圖書刊行會 간 1973)
- 2 <東-朝> : 『제23회 朝鮮關係文獻展示目錄』 (日, 國立國會圖書館 東洋文庫 1958)
- 3 <李-朝> : 『朝鮮時代日本과 書籍交流研究』 李俊杰 著 (弘益齋 刊 1986)
- 4 <江-書> :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 慶應義塾大學 斯道文庫 編 (日, 井上書房 刊 1962)
- 5 <長-韓> : 『和刻本 韓籍目錄稿』 長澤孝三 (『朝鮮史論文集』 村上四男博士 和歌山大學 退官記念 開明書院刊 1982)
- 6 <柳-日> : 『韓國古書籍日本刊行攷』 柳鐸一 (『韓國文學論叢』 6, 7합집 1984)

〈江戸時代韓國文獻日本刊行目錄〉

擊蒙要訣

- *擊蒙要訣 1책 「萬治元年(1658) 季秋穀旦 室町 鯉山町 田中清左衛門刊行」
日人序跋 없음<柳-日>
- *擊蒙要訣 1책 栗谷 李珥(1536-1584)의 저서로 1577년에 간행. 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엮은 入門書. 일본서 1658년에 私家板으로 간행. 또 1716-1735년간에 官판으로 간행. <李-朝>
- *擊蒙要訣 1책 <江-書>
- *擊蒙要訣 2권 祭儀抄 1 권 조선 李珥 萬治元 9刊(京, 田中清左衛門) 1 책 <長-韓>

經筵講義 2책 金宇顙(1540-1603)編.

1573-1585년 사이에 經筵에서 講義한 것. 일본서 상하 2책 간행연대 미상의 各本이 있음. <李-朝>

敬齋箴 조선간본 1650년 일본서 各本 <李-朝>

啓蒙傳疑

- *啓蒙傳疑 2책 <江-書>
- *啓蒙傳疑 2책 退溪李滉(1501-1570)의 저서. 1557년에 간행. 일본에서 1716-1735년간에 2책으로 나누어 간행 <李-朝>
- *啓蒙傳疑 2책 (題僉:易學啓蒙傳疑) 전 4권 朝鮮 李滉. 明曆3, 11刊(五倫書屋) <長-韓>
- *啓蒙傳疑 2책 (後印, 이취權兵衛) <長-韓>
- *啓蒙傳疑 (寬文 9, 正印, 武村三郎兵衛) <長-韓>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14책 (元)曾先之 編 (明)余進通考 元和2년(1616)간 宣祖15년(1582) 弘文館 校理 金晬(1573-1613) 奉教鑿校한 것을 일본서 元和二年(1616)에 일본 東福寺의 守藤集雲이 활자로 인쇄, 말미 跋文은 목판으로 인쇄 元和第貳曆丙辰書雪令辰 惠山, 守藤의 後識이 있음. <東-朝>

困知記

*困知記 明 羅欽順(整庵:1465-1547) 1533간. 星州에서 간행. 壬亂 때 일본으로 넘어가 林羅山이 手寫. 그후 일본판각의 源이 되었다. 1658년 간본도 있다. <李-朝>

孔子通紀 8권4책 慶長(1596-1614)活字刊.

이 책의 底本은 명의 弘治甲子刊本을 明宗 말년에 간행한 것임. 즉 嘉靖壬戌(1562) 李楨(字 而剛, 號 龜巖 1511-1571), 翌癸亥 許曄(字 太輝, 號 草堂 1517-1580)의 識語와 弁語가 붙어 있음. 이 책은 刊記가 없으며 慶長年間の 활자간본임. 이밖 元和活字本도 있다. <東-朝>

臞僂活人心方 3권 1책 明 臞仙(明太祖의 아들 朱權의 自號)撰

이 책의 권말에 「嘉靖庚戌歲(1550) 慶州府新刊. 承應貳癸巳(1653)曆九月吉日寺町三條上町 山本五兵衛尉刊板」이라고 있으며 嘉靖29年庚戌 慶州刊本の 覆刻本임. <三-朝>

鬼神論

- * (南秋江)鬼神論 1 책 朝鮮 南孝溫 寬永20(1643)刊 <長-韓>
- * 鬼神論 남효온(1454-1492)저. 일본에서는 1643년 사관과 1716-1735년간의 판권이 있다 <李-朝>
- * 鬼神輯說 남효온 저 寬永癸未(1643)歲仲秋吉辰 二條觀音町 風月宗智新刊
「世俗不知於鬼神, 是理以非理, 祈所欲其神福之理 有諸. 却是禍之理 有之. 識者 往往 嘆之. 予偶矚此書 亦有避非小補者乎 仍應工之求 而使 之板行」(卷末 後識 作者不記)
- * 鬼神論 1책 <江-書>

近思錄集解

*近思錄集解 4책 송의 葉采가 집해한 것 1370(공민왕19) 진양에서 복간. 성리학입문서. 일본 山崎闇齋가 조선판에서 본주를 뽑고 「근사록」으로 간행. <李-朝>

金鰲新話

*(梅月堂)金鰲新話 1책 金時習 著.

1) 承應二年(1653)刊本

2) 寬文十三年癸丑(1673)仲春 福森兵左衛門 板行

3) 明治17년(1884) □木縣士族 大塚彦太郎 板<柳-日>

「(金鰲新話)序」余嘗讀朝鮮人申叔舟海東諸國記 李退溪經義諸書. 嘆服其學問淵博, 才識超凡. 殆與唐宋諸賢對立無愧色. 從未知有麗情逸思. 能洞悉人情. 如金時習金鰲新話也. 此篇蓋擬明人瞿宗吉剪燈新話. 而其才情飄逸文氣富瞻. 琦句瑰辭. 璀璨如金. 有過而無不及焉. 然其樽蒲記 窺牆傳二篇. 辭則美矣. 未能脫淫靡之習. 浮碧亭記 則樂而不淫. 哀而不傷. 得風人之旨. 浮州志則 此間王 說性命之理 議論卓越 非才識俱備者 決不能辨也. 赴宴錄則 文章雄俊 詩賦雅麗, 可以見其該博之學與俊拔之才矣. 叔舟退溪著作 久傳吾邦, 學者知其為名士, 而金子此著 世絕無知者. 大塚君彦家藏此書. 蓋二百餘年. 不知何人著. 頃間彼人士在我者, 始知出金子手. 遂付之梓, 以永其傳. 朝鮮與我同好久矣. 近日交嚴密, 情最親. 其有才賢猶在我也. 表其隱而揭之. 亦善隣之一端也. 乃喜而為之序. 明治17年(1884) 9月 學海居士 依田百川識(印)

(金鰲新話)跋. 朝鮮 固多小說. 然皆有根據 蓋野史之類. 其傳奇之作 甚稀. 僅有梅月堂金時習 金春澤九雲夢 數種而已. 九雲夢向為清人某所評點 成十卷 印行於世. 惟金鰲新話 只有謄本 以梅月堂有重名於世之. 以其書 全做剪燈新話 其中龍宮赴宴錄 尤肖水宮慶會錄也. 然不可謂非先生之作. 考以年代 瞿佑明季之人 在先生之後百餘年. 故後人疑其雷同. 而且書中 詩辭不甚工. 遂有魚目之辨. 其實取固有者載之 非梅月堂之杜撰故爾. 余以為本邦士子畏清議不敢著稗官怪誕之事 明朝亦然. 瞿佑終以著剪燈之罪 見謫 若後人之擬作者. 豈敢效尤. 而欲習其禍哉. 惟梅月堂與春澤 皆磊落方外之士 故能縱筆於閨閣香艷仙鬼奇幻之事. 以寓其懷. 殆楚詞之比賦. 此書為日本 大塚氏所藏 已二百二十餘年書之古 可知矣. 今上於梓 以壽其傳. 乃知大塚氏重其人也. 讀此者 宜致思焉. 大朝鮮開國四百九十三年 甲申之秋 漢陽 李樹廷 識(印; 笠齋 三韓布衣)

「梅月堂金鰲新話跋」大塚彦將鐫朝鮮人金時習所著金鰲新語 携來示余.

余閱之嘆曰 蓋作者 成化初 抱才學與時不遇 故發憤慨於此焉耳。如其萬福寺楞齋記 李生窺牆傳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諸篇 或情致纏綿 或感慨鬱勃 或悲壯淋漓 或議論明快 或豪懷航驟。一讀使人擊節不已。但諸篇多虞初體 特乏聖賢正大之筆氣矣。而獨如醉遊浮碧亭記一篇 其文則歐蘇 而其詩則老杜之忠憤。而許渾劉錫禹之筆墨也。實是爲壓卷。嗚呼如此奇書 埋沒不顯者 四百餘年矣。今因大塚生而顯于世 可謂奇遇。東坡嘗自題其試筆曰「後五百年當成百金直」物固有遇有不遇也。余於此書亦云 明治十七年甲申(1884)秋 撰於青天白日樓中 白賁道人 蒲生重章(印)

通編 文章華麗 詩賦清脫 紀事傳奇之佳者也。余曾讀清人蒲留仙 聊齋志異 亦稗史中之最妙者也 今讀此篇 其事奇而其詩則正。決非狂怪之辭也。意者彼其巧 全在文章 故篇篇用意 時插四六之辭。此編不然,其巧全在詩賦。如後卷雖有炎浮之文 至龍宮赴宴則 類插騷體之賦 其意之所在 亦可知而已。而其所論 非尋常傳奇之類也 他日必堂上木 欲重觀之。梅外仙史批評 岡秦窓 書。

余衰老 披尋常書多不能經卷。而此卷披讀 殆不能釋手 空覺愉快 可謂奇書矣。甲申(1884)初秋於陽然樓北堂下 湖山七十一叟 小野應誌(卷末)

*金鰲新話 2책 梅月堂 金時習(1435-1493) 이 지은 한문소설. 일본에서는 1653판과 1660년의 私家板이 있다 <李-朝>

*金鰲新話 2책 <江-書>

*(梅月堂)金鰲新話 1책 조선 金時習 承應2年(1653)간 <長-韓>

蘭雪軒詩集 1책 (朝鮮崇禎五年東萊府刊本 朝鮮 許氏撰 許筠編 正德元(1711) 刊「文臺屋治郎兵衛 開板」<長-韓>

老乞大 1책 1427경 간

世宗朝 朝鮮刊本 일본은 1427년경에 번각하여 간행하였다 <李-朝>

老松堂日本行錄 1책 宋希璟著 谷村一太郎 小川壽一 校訂 <柳-日>

棠陰比事 3권 1책 宋 万榮撰 慶長·元和中 活字刊

이 책은 刊記가 없으나 표지 장정을 한국식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일견 한국본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林羅山手校跋本(內閣文庫)은 한국본을 베낀 것이며 또 다른 한국본으로 對校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번 간행되니 즉 元和活字本·寬永(1704-1710)刊本·風月宗智整版本 등 數種이 있다. <東-朝>

唐土行程記 4권4책 明和己丑(1769)간

*唐土行程記 4권4책 崔溥 著 清田絢抄譯 明和六己丑(1769) 6월 皇都書林 河南四郎右衛門 林伊兵衛日野屋瀨七端六右衛門 合刻(卷末에 隆慶3년(1569)에 쓴 柳希春의 跋文이 붙어 있음) <柳-日>

*唐土行程記(표해록) 3권 조선 崔溥(錦南) 明和六(1769)刊 <長-韓>

*唐土行程記 4책 <江-書>

大學講義 1책 寬文3(1663)간

*大學講義(版心) 1책 朱子 眞子 大學經筵講義 合 2권 조선 宋佛編 寬文3(1663)刊 <長-韓>

東國史略

*東國史略 6권 2책 柳希齡 著 刊年未確認 이 책은 현재 臺灣故宮博物館에도 한국 간행 활자본과 함께 소장되고 있다. <柳-日>

東國通鑑 56권 30책 寬文7년(1667)간

*東國通鑑 56권30책 寬文7년(1667) 京都 松栢堂 林前和泉椽白水에 의해 간행. 明治16년(1883) 京都 三條通 高倉東入栲屋町書林 出雲寺 文治郎 補刻 重刊 <柳-日>

*東國通鑑 56권수1권 (明 成化21년간본) 조선 徐居正等奉命撰 0達訓点 寬文7(1667)刊 <長-韓>

*東國通鑑 57책 徐居正(1420-1488)등찬.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編年 史料 1484년에 간행. 일본에서는 1667년 私家板으로 京都의

書肆 松栢堂에서 續 刻刊行. 官版은 1716-1735년간에 간행.
<李-朝>

*東國通鑑 57책 <江-書>

東垣十書

* 東垣十書 22권20책 1597간

권말간기에 「慶長丁酉(1597), 洛之甫庵道喜」라고 있음. 이는 한국본을
저본으로 만든 것으로 봄. <三-朝>

東醫寶鑑

*(訂正)東醫寶鑑 25책 內景篇4권 外形篇4권 雜病편11권 湯液편3권 鍼灸
篇1권 目錄2권 朝鮮 許浚撰 源元通 點 享保9(1724) 京都書林 搦井
藤兵衛板行 (官板)

#序: 東醫寶鑑 二十五卷, 朝鮮國臣許浚所輯也. 分辨內景 外景 湯液 鍼
灸 雜病, 而古今衆說如察諸於掌, 可謂醫業校稽之一助乎. 此書齋來
者寡, 故世人罕知之, 於是 命醫官法眼源元通加之訓訂, 附之劊刪 使
僕爲之序, (중략) 官之慮當世與後世者, 可以對揚焉, 因序. 享保八年
(1723)癸卯孟春中旬, 從五位下守大學頭 藤原朝臣信篤謹跋. <三-
朝>

*(訂正)東醫寶鑑 25책 (후인, 경도, 搦井藤兵衛) <長-韓>

*東醫寶鑑 25책 허준(?-1615)저 1613년 간행. 일본에서는 1662년에 처음
들어 왔고, 1716-1735년간에 관판으로 여러번 복간. 1724년 京都
書林과 1799년 大坂書林에서 校合, 訓點을 달아 번각하기도 하였
음. <李-朝>

*東醫寶鑑 3책 <江-書>

東人詩話

*東人詩話 1책 徐居正著 貞享4年(1687)刊

이 책은 成宗8年(1477) 密陽에서 간행한 초간본을 孝宗6年 乙未(1655)에
日本通信使 수행원이던 李明彬이 일본인 菊池東勾(1617-1682)에 기증한
것인데 이를 東勾의 아들 鵬溟(1658-1720) 이 1687(숙종13)에 간행.

日人 鵬溟의跋文

明曆乙未(1655, 효종6)歲 朝鮮信使來朝, 學士 李明彬隨焉. 到洛留于本國寺有日矣. 膳所城主 本多總使君承命爲之館伴. 時先考 新辭久留米教授 閑居于洛之城西. 使君乃煩以文書之事 得接三使及明彬等 邂逅鄭重贈酬不尠. 歸棹之日 明彬出一奇書曰「此吾邦之詩評 而先輩徐剛仲氏之所著也, 名曰東人詩話. 雖不足播之大邦 而吾與子相識之 贈也 幸不棄捐措諸几案之間, 時得遊目則別後亦猶見我乎」 遂先考而去, 爾來二十八年, 先考既歿, 又五年而得之遺篋之中, 追憶往事, 感泣不止. 嘗聞明彬來朝歲垂四十, 推以算之 則至于今年殆七十歲, 其存歿 亦不可知矣. 異時此書, 不幸 而若蠹煨燼之厄則 人與物俱亡 而今之追憶感泣者 又以滋甚無憑也哉. 乃爲校讐訓點 出而刊之梨, 以要其大年已. 先考 菊池氏 名勻 字東勻 號耕齋, 嘗以字行, 明彬 字文哉(號)則石湖也. 貞享 丁卯(1687) 四月 望日 鵬溟 原搏九萬甫識.

- *東人詩話 徐居正撰 1477 刊 日本에서는 1655(제6회) 통신사 趙珩에 수행한 제술관 李明彬이 京都 本國寺에서 그의 접대관 菊池東勻에게 賜한 것을 아들 鵬溟이 1667년에 4책으로 나누어 복간. <李-朝>
- *東人詩話 2권 4책 조선 서거정찬. 菊池源濤(鵬溟)點 貞享4(1687)刊 (江, 日野屋西助) <長-韓>

馬經大全

- *馬經大全 8책 李曙(1580-1637)이 편한 수의학서. 日本에서는 1670년 이전에 8 책으로 나누어 번각. <李-朝>
- *馬經大全 1책 1702 이후 <柳-日>

無量壽經連義述文贊

- *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1책 조선 釋璟興 元祿12(1799) (京都, 井上忠兵衛) <長-韓>

無量壽經綜要 3책 조선 釋元曉 寶永八(1711)刊 (河南四郎右衛門) <長-韓>
 無冤錄述 2권2책 河合尙久抄譯 寬政11년(1799)刊

朝鮮刊本 鰾刻本の 傳本이 稀貴하기 때문에 泉州河合家家藏의 無冤錄述을

간행한 것. 尙久의 緒言 이외에 元王與·明羊角山叟·朝鮮柳義孫·崔萬里의 序跋이 붙어 있음. 明和5년(1768)刻成, 寛政11年己未八月求版, 浪華書林 松村九兵衛 刊 <東-朝>

#嘉永7년(1854)補刻, 浪華書林松村五兵衛 柳原喜兵衛. 識語: 「明和五年戊子初秋日 東都崇文堂識」 <三-朝>

百聯抄解

*百聯抄解 1책 河西 金麟厚(1510-1560)編으로 한시 100구를 한글을 달아 抄解한 책. 일본간본은 원저에 있는 한글을 뽑고 한시만으로 간행한 것이 있다. <李-朝>

四書

*四書 조선간본. 일본에서 1650년 복각 <李-朝>

三綱行實圖

*三綱行實圖 3권 1책 僕循 奉命撰 序文 刊記가 없으나 대개 1642~1651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음.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그 인본이 있음.

*三綱行實圖 3권 (明 宣德7년간) 전 3권 조선 僕循等奉命 (寛永)刊 <長-韓>

*三綱行實圖. 9책 세종 13년(1431)에 설순 등에 명하여 편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충 효 열에 관한 자료를 뽑아 엮었다. 일본에서는 1716~1735년 간에 간행한 한글이 있는 官刻 覆刻本과 1670년 이전 9 책으로 나눈 飜刻本이 있다. <李-朝>

*三綱行實圖. 9책 <江-書>

三班禮式

*三班禮式 2권 1책 조선 李昉應撰 慶應2(1866)序刊 <長-韓>

三韻通考 1책 作者未詳 간년미상. <柳-日>

三韓詩龜鑑

*三韓詩龜鑑 3권 3책 趙云佐編 「于時元祿11年戊寅(1698)中秋穀旦 皇城書肆 肆桐 華堂 中村五兵衛彫刊. 이 책은 중종 21년(1566) 順天府刊本을 복각한 것임. <柳-日>

『新刊三韓詩龜鑑 序』

三韓詩龜鑑者 朝鮮 石澗 趙云佐所撰. 而拙翁崔澹批点也. 新羅朝人 以崔致遠爲始. 所謂新羅 高麗 百濟也 予書藏貯朝鮮文籍 有東文選 東文粹 如自家集有牧隱集 圃隱集 醒狂存稿 訥齋集 晉山世稿 三峰集 滹溪集 十省堂集. 於詩話者 有破閑集 補閑集 東人詩話等之書. 然或繁冗或簡疎也. 如龜鑑者 網羅于歷朝之數人而精選雅健也. 今夫本邦與朝鮮 隣交年久 而自寬永(1624-1643)以來之聘使. 大抵 以詩之酬和 結交於本邦者 間多 而自昔未親於三韓詩選等之書 鈹板行于世矣. 故命劄剛氏鏞梓以傳不朽. 石澗者何人 豐壤縣人. 仕于高麗王 爲諫議大夫 李氏及執國柄更號朝鮮 而又仕朝鮮 授江陵府使. 尋以病辭歸廣陵別莊. 崔澹者卽崔猷山也. 今觀此撰 其異邦歷朝詩人之趣. 亦可尙者多 因敘卷首云爾. 元祿丙子(1696)三月望 鈴秋峰散人書.

*三韓詩龜鑑 3권 (朝鮮嘉靖45년간본) 조선 趙云訖 편 元祿11(1698)간 <柳-日>

*三韓詩龜鑑 3권 <江-書>

西銘考證講義

*西銘考證講義 1권 1책 *元祿6年癸酉(1693)八月之吉日 京東洞院夷川上町 林九兵衛壽梓 寬文丁未(1667)季秋望日 一齋謹記(卷末) *寬文八戊申(1668)仲春吉旦 棋町通角倉町 山森六兵衛刊行 *寺町通 佛光寺 下町 耆屋勘兵衛

*角倉通 監屋町 小松太郎平開板

*明治二年己巳(1869) 補刻 浪華書肆 騰孚閣梓 <柳-日>

(後記) 右西銘考義一篇 退溪李氏之所輯. 見于其集. 引證精審. 講意切實於看朱夫子之解者. 固爲有佐焉. 引表出之. 以與同志云. 寬文丁未(1667)季秋望日 一齋謹記.

*西銘考證講義 1권 1책 朝鮮李滉 寬文八(1668)刊(止村六兵衛)

- *朝鮮李滉 寬文八(1668)간 (京, 香屋勘兵衛) *朝鮮李滉 寬文八,(1668)간 (明治二補, 大, 騰孚閣)
- *(朝鮮韓漫書萬曆中刊本)諺文入朝鮮李滉撰, 鶴飼信之(石齋)点元祿 六, (1693) 간 (京, 村上九兵衛) *上同(後印, 京, 小松太郎半) <長-韓>
- *西銘考證講義 1권 1책 李滉著 日本에서는 1668년 山森六兵衛의 것과 1693년 林九兵衛의 覆刻本, 1869년 浪華書肆의 補刻板이 있다 <李-朝>

禪家龜鑑

- *禪家龜鑑 1책 西山大師撰 延寶6年(1678)刊
「延寶二歲戊午(1678)春王正月穀旦, 二條通玉屋町村上平樂寺開板」
- *禪家龜鑑 1책 朝鮮釋休靜著 惟政跋「寬永15(1638)稔 仲春 開板」(卷末)
- *禪家龜鑑 1책 <江-書>

聖學十圖并戊辰封事 1권1 책 李滉撰 承應 4年(1655)刊

- # 「承應4年(1655)三月上旬, 二條通 武村勘兵衛」
- # 「承應4年(1655)三月上旬, 西村五郎兵衛開板」
- *聖學十圖 1책 李滉저 1681년에 간행. 1741년 중간 聖學의 요를 圖解한 책. 일본에서는 1655년의 西村五郎兵衛開板本과 同年 二條通 武村勘兵衛의 刊本 無刊記本 羅山自筆의 寫本이 있다. <李-朝>
- *聖學十圖 1책 <江-書>

性理字義

- * 林羅山이 朝鮮本을 보고 手寫한 후 1632년에 中野小左衛門이 간행한 것과 1670년 두 차례 私家板으로 복각하였다. <李-朝>

小學句讀 1650년에 조선간본을 복각하였다. <李-朝>

小學本注 1650년에 조선간본을 복각하였다. <李-朝>

小學集成

- * (標題註疏)小學集成 10권 5책 (宋)朱熹撰. 「日本萬治元年(1658) 風月莊

左衛門, 1429년 朝鮮活字重刊本 覆刻 <柳-日>

*小學集成 宋의 朱熹編 何士信註로 1429년의 鄭麟趾의 跋文이 있다. 일본에서는 1658년 12책으로 나누어 복간하고, 또 山崎闇齋(1618-1682)가 朝鮮板에서 本註를 뽑고 『小學』으로 간행 <李-朝>

*(標題註疏)小學集成 10권 題辭綱領 1권 圖 1권 5책 朝鮮 金汝校 萬治元年(1658)刊(朝鮮正統中 古活字印本) <長-韓>

續蒙求

*續蒙求 4권 柳希春의 저서로 1588년에 간행. 經典 子史에서 좋은 글을 뽑아 4자로 句를 만들어 엮은 책. 일본에서는 1670년 이전의 翻刻本과 1716-1735년간의 官刻本이 있다. <李-朝>

*續蒙求 <江-書>

壽養叢書類輯

*壽養叢書類輯 4권 朝鮮 李昌庭撰 「寬文 九年己酉(1669)初冬 村上三郎兵衛刊行」

序 : (전략)或時洛滋一道人來, 出「壽養叢書」, 而示余曰, 此 書也, 自朝鮮傳來及我朝, 予攤而閱之, 是攝生之書 其最善者也. 簡而取要 略而拔粹, 上自養氣全神, 下到調節食物之忌, 靡不該載也(중략) 故斯書鉅粹, 以爲濟生保生之具, 豈無補矣哉. 杏林一枝 久保氏 立菴元叔漫序. 跋 : 「萬曆庚申(1620)仲夏 華陰散人 無求翁謹跋」 <三-朝>

詩人玉屑 21권 10책 宋 魏慶之撰 寬永16년(1639)刊

이 책은 우리 世宗21년(1439) 한국간본을 覆刻한 것이다. 忠淸道觀察使 尹炯의 跋文과 校正官들의 이름이 새겨 있다. 刊記는 「寬永16年 京二條通鶴屋町田原仁左衛門新刊」. 이외에 正德2년(1712)각본도 있다. 그런데 한국간본 21권말 여백에 ‘茲書一部 批點句讀畢. 胸臆之決錯謬多焉 後學之君子望正之耳. 正中改元(1324)臘月下 幹洗心子 玄惠誌’ 라고 附刻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日本刻本을 저본으로 삼은 것 같다. <東-朝>

詩人要考集

*詩人要考集(帶圖本) 4권 朝鮮 菊軒編.書肆堂藏板 元祿 八(1668)乙

「詩人要考集叙」: 如古詩三百篇, 其言簡奧, 而非後世之所能及也。漢魏六朝之間, 雖有善鳴者 華實質文, 得其中者 蓋鮮矣。至唐杜甫太白之徒出而方正其體製, 隻字片句, 皆足以爲法, 固詩家之梁柱也。粵有朝鮮人菊軒於于默齋聯珠詩格中 擇其傑出者 五十人, 圖其像, 揭其詩, 題曰 詩人要考。時時吟哦竄喜其風格焉。處士某需斯書珍藏之也 尚矣。嘗書林累請刻于梓, 亦不敢秘。遂出與之。但欲使幼學, 加以諺註, 蓋以詩法并附之劄副, 使子爲之序。予雖不解詩而熟讀此詩則, 所謂華實相應, 意境共至, 醇乎醇者歟。學者 各自置一帙於側, 從其格律 勉學不已。李杜之玄妙, 亦何待知他乎, 可謂得詩家之要路者也。元祿乙亥(1668) 初秋 朔 蝸寓散人拜書。

神國童蒙先習

*神國童蒙先習 1책 陳復昌著 松下見林 刪補 元祿癸酉(1693)橘月壬申 平安松下見林序, 「元祿六年癸酉(1693)十二月之吉日 京東洞院通 夷川上町林九兵衛壽梓」 <柳-日>

「神國童蒙先習序」 夫道之在天下, 無古人之殊。人之稟受於天者, 亦無古今之異。而治亂得失, 相距之遠者。道之不明不行故也。我神代, 以神道說教。以神器象神道, 欲其常接乎目, 每警乎心, 而不至於忽忘。以明德修身, 而治天下。天下之人, 以上心爲心, 俱合於道也。此時, 未有文字。然其神理先天不違。默契中華聖人之旨。此無古今之殊, 無稟受之異故也。是以, 我先王, 尊信聖學, 立學校, 行釋奠, 令天下之人知道。有進士試科之法, 令野無遺賢。于孝子, 于義婦, 表其門閭。勉其租賦, 令人懷凜凜 勵忠孝矣。宜乎中華之接位 在王候之先, 不居蠻夷之邸也。然保元之亂, 骨肉關弓。平治之逆, 股肱起禍。此道之不明不行故也。於是, 世衰道微, 邪說暴行又作。其間 讀書知理之人, 往往出世, 而杯水難救車火。痛乎風俗日薄, 氓之蚩蚩, 可哀而已。余雖不敏, 閱病之意, 不爲不多。僭述訓辭一篇, 其文取陳復昌童蒙先習之舊, 或筆或削。未附我朝事蹟名曰神國童蒙先習。不敢輕傳達識, 所無訓蒙而已。其簡便, 教人不難, 人習亦易。乃家諭戶曉, 造次必

22 韓國文學論叢 제 22 집

於是，顯沛必於是，則庶幾行遠升高之助，挽回淳古之風云爾。元祿癸酉
(1693) 橋月壬申 平安 松下見林序。

*神國童蒙先習 1책 <江-書>

神應經

*神應經 1책 1474년 韓繼禧(1423-1482)의 중간으로 原著는 明의 陳會가
1425년에 간행. 1643년 沈器遠(?-1644)등 奉勅編으로도 간행. 일본에서
는 1645년의 私家板과 1716-1735년간의 官板이 있다. <李-朝>

新註無冤錄 上下 2권 元 王與撰 無刊記.

이 책은 明 洪武刊本을 世宗의 명을 받아 吏曹參議 崔致雲(字 伯鄉, 號
釣隱 1390-1441)이 補註를 붙여 世宗22년(1440) 江原道監司 崔萬里가 原
州에서 간행한 것을 일본서 覆刻한 것. 간기는 없고, 아마 江戸中期 이전
에 간행된 듯. <東-朝>

(新增)鷹鵞方

*(新增)鷹鵞方 1 책 고려 충혜왕 때 李文烈公이 지은 매 飼育書. 일본에
서는 1643년 간행의 번각본과 1716-1735년간의 官刻本이 있다. <李-朝>

*(新增)鷹鵞方髓 조선 李堧편 寬永20(1643)간 (瓊古活, 京, 南倫堂) <長-
韓>

(新增)醫方大成發提 조선간본

일본서 1500년말에서 1600년 初頃에 覆刻. <李-朝>

新總諸宗教藏總錄 2권2책 高麗 義天編 元祿6年(1693)刊

이는 「海東有本現行錄」通常 「義天目錄」이라고 한다. 11世紀 宋 遼 高麗
日本에 流布되고 있는 經律論章疏의 目錄이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제4
자로 大覺國師라 한다. 그는 入宋하여 釋經 一千卷을 받고 또 遼宋에서
四千卷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 目錄은 일찍 일본으로 들어와 학계에 贈
與되었고 처음으로 白玄(增上寺三三代, 1626-1700)의 序를 붙여서 간행
되었다. 「元祿六年歲次癸酉鵞月陽精, 洛下書林, 井上忠兵衛壽梓」<東-朝>

(新編集成)馬醫方 附牛醫方

- * (新編集成)馬醫方 附牛醫方 2책 趙浚(1346-1405) 등編으로 牛馬에 대한 飼養과 治療방법을 기술. 일본은 1716-1735년간의 官刻板과 연대미상의 覆刻本이 2책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李-朝>
- * (新編集成)馬醫方 附牛醫方 4책 1624-1702간 <柳-日>

(新編集成)牛醫方 (朝鮮萬曆八年(1580)간본) 1권 (新編集成)馬醫方 1권 조선 趙浚 등 (江戸)간 (京, 勝村治右衛門) <長-韓>

心經附註

- * 心經附註 4권4책 (宋)眞德秀撰 (明)程敏政附註 附書李滉心經後論 慶安2年(1649)刊 저본은 선조 초년의 간본일 듯. 「慶安二년(1649)仲春日 村上平樂寺開板」 「正保四丁亥(1647)六月吉日 二條通 澤田庄左衛門刊」
- * 心經附註 4권 附心經後論 明程敏政(附)朝鮮李滉 正保 四,六刊 (京,澤田庄左衛門).
- * 心經附註 4권 附心經後論 明程敏政(附)朝鮮李滉 慶安二刊(京, 澤田庄左衛門) <長-韓>
- * 心經附註 4권 附心經後論 송의 眞德秀撰. 明程敏政附註 李滉後論. 일본은 1647년 二條通 澤田庄左衛門 간행본과 村上 平樂寺 開板本이 있다. <李-朝>

心氣理篇 1책 三峰 鄭道傳(?-1398)撰 1633간

- 일본에서는 1633년에 句讀點을 가한 私家板과 1716-1735년간의 官刻版이 있다. <李-朝>
- * (三峰先生)心氣理篇 1책 또는 2책 <江-書>

十四經發揮

- * 十四經發揮 조선간본 일본서는 1500년말-1600초에 번각하였다. <李-朝>
- * 十四經發揮 3권 1책 1596간 <柳-日>

阿彌陀經經疏 1책 <江-書>

語錄解 柳希春 편

1652년에 일본서 覆刊 <李-朝>

歷代君臣圖像 2책 明 高宗明撰. 朝鮮弘文館奉教贊 1651년 重刻

- * 「慶安四年辛卯(1651)五月 御幸町通 長倉町 安井宗左衛門衛開板」중각.
中宗21년(1526)에 간행된 한국본의 복각으로 嘉靖四年(1525) 議政府左
贊成兼弘文館 大提學 李荇(1478-1534)의 序가 있음. <東-朝>

易學啓蒙圖說 4권3책

- * 明曆3丁酉(1657)仲冬吉日 五倫書屋 開板
- * 明曆3丁酉(1657) 仲冬吉日 伊吹權兵衛板
- * 寬文9(1669)孟春吉日 武村三郎兵衛刊行. 이상은 同一種本임. <柳-日>

易學啓蒙補要解

- * 易學啓蒙補要解 4권 4책 (宋)朱熹 著 世祖要解 寬文9(1668)간. 成化2년
(1466) 崔恒의 跋文이 있음. <柳-日>
- * 易學啓蒙補要解 世祖撰으로 朱熹의 易學啓蒙을 해석한 책. 일본에서는
1716-1735년간의 官刻板으로 간행년도미상. <李-朝>
- * 易學啓蒙補要解 6책 <江-書>
- * 易學啓蒙要解 4권 6책 (제침 易學啓蒙補要解) 朝鮮 崔恒等奉命寬文
9(1668)刊 <長-韓>

易學啓蒙傳疑 2책 1657 간

朱熹의 易學啓蒙을 諸儒가 辨釋한 책. 1657년 五倫書屋 開板本과 동년 伊
吹權兵衛의 板, 1669년 武村三郎兵衛 간행본이 있다 <李-朝>

聯珠詩格 1책

- * 중국의 유명한 시를 뽑아 주해한 것으로 1485 徐居正이 주해한 것과 그
후 1492년 성종의 명에 의해 安琛 成俔 등의 증보판이 있음. 일본에서는

1716-1735년간의 官刻本과 1670년 이전의 翻刻本, 그리고 1804 및 1831년의 翻刻本이 있다. <李-朝>

延平答問

- *延平答問 2권 2책 朱熹編 明 周木補 李滉附跋 正保4년(1647)刊
이 책의 저본은 朴希正이 明正德癸酉李習刊本을 얻어 퇴계와 의논하여 淸州牧使 李剛에 부탁하여 淸州에서 간행한 것. 明宗9年 退溪의 跋文이 붙어 있음. 「正保4丁亥年(1647)仲夏下旬刊 京都書林 二條通 依棚 風月庄 左衛門」
- *延平答問 2권 宋의 朱熹編 明 의 周木補 李滉附跋. 일본은 1646년 宗旨刊本과 1651년 中野小左衛門의 覆刻本이 있다. <李-朝>

玉機微義 50권 8책 明 徐用誠撰 1605간

「曲直瀨玄朔校訂, 松印軒玄忠開板」 慶長10년(1605)간 활자본 이 책은 중국 正統版과 韓國版을 교합하여 만든 것임. <三-朝>

玉山講義 조선간본 1650년 覆刻 <李-朝>

外科精要 3책 宋 陳自明撰

江戸의 官醫 津輕氏의 藏板. 한국본 「外科精要」을 근거로 異同을 對校하여 만든 것. 권말 小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음. 「戊午冬 「精要」刻成,將刷行 偶見韓本 乃是鹿門望氏之舊藏, 文字有與前小校諸本不同者 更參對標記上方以續刻之 因思宇寅之大有何等異本 唯願後賢重訂爾. 己未初夏 健壽識」<三-朝>

龍龕手鑑 8권 7책 (遼)行均撰 慶長(1596-1614)活字刊

본래 龍龕手鏡인데 避諱 때문에 鑑으로 바뀐 것임. 고려 때 한국에 들어왔고 조선조에는 成宗조 刊經都監開印本이 전해지고 있음. 이 책은 증보본이나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어도 아마 한국사람인 것 같다. 이 책은 조선조 간본의 覆刊임 .1596-1614 사이에 간행. <東-朝>

韻會玉篇 2책 <江-書>

隱峰野史別錄

*隱峰野史別錄 1 책 安邦俊 著 「嘉永己酉(1849)仲冬 有乎爾齋 刊」, 이는 안방준의 壬亂記錄인데 현종 4년(1663) 興陽에서 간행된 刊本을 가지고 渡邊崧이 일본에서 간행한 것임.

隱峰野史別錄敘: 隱峰野史別錄一卷, 韓人安邦俊所著. 事蹟皆係其所目擊, 雖瑣瑣之小冊, 有足以補史家之闕者焉. 我邦傳寫已久, 但恨其不易得耳. 頃者, 社生渡邊崧欲刊而公諸世, 而謁敘於余, 余不敢辭也. 夫征韓和議之說, 出於小西行長與沈惟敬之詐謀, 而實我瞞彼, 於我固所羞焉, 而彼亦所不快也. 今觀此冊, 往往載往來交通之書, 而至和議冊封之事, 唯見之劉綎書中而已. 不詳其始末焉. 因意當時惟敬等之所知, 而他人不聞也. 余家嘗藏明主論豐公文一通. 蓋幸免豐公之破裂者. 嗚呼. 韓土當時所不得見者 經二百餘歲而歸余家, 不易爲奇乎. 然則此冊雖流傳於我, 而不知其或逸於彼否. 今因崧之舉, 而得徧布世, 知固此書之行矣而亦. 非韓土之幸乎哉. 是則余之所以弁詹言也. 嘉永鷄年臘月下浣 立軒佐藤槐題. (印)

隱峰野史別錄序: 朝鮮安邦俊 隱峰野史別錄一卷, 傳寫已久. 頗有訛缺. 頃友人渡邊氏, 於某坊購善本, 讐之於余所藏, 參互攷訂以鏤梓. 且屬余爲序. 余曰 弊不稔乎內, 亂何自而作焉. 患不乘乎外, 亡亦未遽至也. 朝鮮自昭敬而上, 國家閒暇. 至是君臣上下, 居安忘危, 漸以解弛淫奢, 隳綱紊紀, 內廢休養之政, 外失海關之防禦. 蓋其蓄弊胎禍, 固已久矣. 一旦戎孽啓動, 邊候報急, 而尙且信兩面之姦諛. 沮淑儻之忠謀, 加之張皇虛威, 輕蔑強國. 宜乎, 神兵天降, 電戈一指, 而人情波駭, 大勢挫衄, 三都失守, 八道瓦解. 彌天之恥, 傾海不可洗也. 孟子曰「國必自伐而後人伐之」, 禍福無不由己求之者. 苟內治之無玷, 豈外患之易乘哉. 後之用國者, 或惰而忽焉. 亦若清人之厄於英夷, 終踵厥覆轍耳. 故形醜者嫉鏡, 政亂者惡聞治道. 其弊必至乎敗而止, 非惟朝鮮然也. 抑渡邊氏之刻此書者何. 詩云「他山之石可以爲錯」, 是其意毋乃欲以俾夫讀者, 深鑒於浴祖宗之恩澤, 溺乎安佚, 曾不思瘠民自蒙. 乃所以速禍者, 與彼遭變失措. 劬勤謀

擾，猶不自改悟，卻怨他人者。而惻然警省，凜乎反觀，益濯磨其心靈焉耶否乎。余與渡邊氏有舊，弗忍孤其請。遂書簡端返之，弁以爲問。嘉永己酉(1849)十一月上幹 同齋 朝川麿 謨(印)

卷末識語：此冊余得之坊間，魯魚不可讀，乃就朝川氏所藏校正，庶乎無謬誤，然尚有可疑者，不敢妄改，俟後之明者。嘉永三年庚戌(1850) 清和月 渡邊統識(印)

跋：余嘗論邦家之事，得其道則理，失其道則亂。今古華夷皆無不同也。而若其形勢事情則有各異者焉。譬之邪氣惑人，其爲病無有異者而人有老壯強弱，故其更病之形狀則各有不同者焉。論病者，察其形狀，而知其所因焉。而後施其治術，則病可得而治矣。理亂亦然。故有形勢事情，後世有後世形勢事情，華也夷也，以無不然，苟不審其形勢事情，則得失之機安可知哉。今欲審其形勢事情，舍記載將以何哉。而歷世記載之書。傳我東方者，遷史以下，不賞汗牛充棟，理亂之謬彰之可見。然既有古今之異焉。故後之鑑前事者，必舍其遠而異者。取其近而同者。蓋以其形勢事情易見，而鑑戒切也。詩云「殷監不遠」，在夏后之世，言取其近也。然則近代代理亂之事，尤可致意者，莫朝鮮文祿之事若焉。夫朝鮮與我隣接，而禍亂日不甚遠，況征討之師，自我東方。則所謂近而同，是形勢事情之尤易見者，其爲後鑑不寡也，而是役之記于彼者 懲愆錄在焉，而刻行于我者已久。又有隱峰野史別錄，其所記簡而得要，亦足以考禍亂顛末耳。如山渡邊君 頃手校鑲板，欲永傳之于字間。因記 余平常所持論于後。若夫禍亂之所由致者。讀者自知之。嘉永己酉(1849) 臘月 櫻關室克撰并書。(印)

*隱峰野史別錄(清康熙62년간본) 조선 安邦俊 嘉永2(1848)간 <長-韓>

*隱峰野史別錄 1책 安邦俊이 1627년에 저술하고 1663년에 간행한 野史로 壬辰錄露梁記事, 晉州敘事의 3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에서 1849년 私家版으로 번각간행 하고, 또 渡邊이 번각하여 출판하였다. <李-朝>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70권 林堯叟直解 寬文辛丑(1661) 朝鮮本覆刻 「上村次郎右衛門新刊」講習堂人 昌易点焉, 寬文元年(1661)六月吉辰 二條通玉 屋町上村版本, 이는 景泰五季甲戌(1454) 錦山刊本을 복각한 것임.

醫方考 조선간본 1500말-1600초경에 일본서 복각. <李-朝>

醫方類聚

*醫方類聚 266권 목록 1권 264책 조선 梁誠之等撰 喜多村直寬校 嘉永 5(1852)序刊

卷首：「倣朝鮮國活字原本縮刻，醫方類聚，學訓堂聚珍板」卷末：「文久紀元 辛酉仲春月，江戶 學訓堂活字排印」

聚珍版醫方類聚序：醫之爲道廣矣大矣，蓋自非學淹貫古今，融會群言，無以能應萬變奏回天之功，而況能筆之於書，以貽後世則宜乎，難其人也，嘗竊求之，其網羅薈萃稱集大成者，未有如朝鮮國所輯『醫方類聚』也。其書不詳出于何代何人，然所援引書乃止于明永樂間，而其國許凌『東醫寶鑑』曰，本國祖宗朝命文官醫官選集，金安國『慕齋集』梁文襄公碑銘，敘稱校進『醫方類聚』，梁名誠之 正統六年進士，歷任六主，以成化十八年沒，然則當時編纂年歲 亦約略可知耳，書凡二百六十六卷，卷爲厚冊，其所採摭凡一百五十餘部，而宋元佚書 亦復爲不尠，蓋篇帙之富爲見存醫籍之冠，學者猶鑄山爲銅 煮海爲塩，眞方術之大觀 濟生之寶筏也。但是書世僅傳一部云，文錄之役 將帥加藤清正所獲，後二百年，先教諭得之一醫家。什襲藏弄之，又每拔其粹 以供臨處之用，而時 或有借貸謄錄者，亦每苦篇帙浩澣，往往不能果，同僚喜多邨士栗既 博通其學，恆是書之最裨人世，而世絕罕傳本，遂鳩精工，附之聚珍版，同志聞之撲躍，各據金以助其貲，士栗於是益加勉勵，將陸續告竣，可謂盛矣。原本所缺凡十二卷，士栗倩弘前 醫員□江道純，參攷諸家略足之，其功亦不可沒也。抑夫我大府 厚恤民隱，甚重醫術，施藥劑濟孤貧，設瘥舍誘醫生，救艱療厄之具 靡不畢備，士栗入爲侍直兼教諭醫痒，今又有此盛舉，俾學者得以能萬變奏回天之功，其仰 休國家好生之德，而拯黔黎之夭札者，其在於斯乎，其在於斯乎，大日本嘉 永五年(1852)四月朔，江戶侍醫尙藥兼醫學教諭 丹波元堅撰

*醫方類聚 266권 264책 1861 <柳-日>

*醫方類聚 266권 조선간본 일본서 복각본으로 간행. <李-朝>

醫眼方(崑山顧公醫眼論并方) 1권 1책 明 顧鼎臣撰 文化11년(1814)간

中宗35년 경자(1540) 慶州府刊本을 宮本采眞이 校閱하여 文化11년 甲戌(1814)冬 東部書林 萬笈堂 英平吉이 번각한 것. 내용은 한국본과 같다. 卷首에 文化甲戌秋九月宮本氏의 序文이 있음. <三-朝>

醫學正傳 8권 8책 明 虞博撰 慶長 2년(1597)刊

이는 활자본. 한국판의 「醫學正傳」을 參校 출간한 것. 「扶桑國平安城西洞院居住 南庵道喜(豐臣秀次の 侍醫)苟以愚意刊一字之版 而印茲書 校支那三韓之兩本 宗其正者也 雖然字字可多舛差 若有博覽之妙手斲泥者 幸甚 皆慶長第二丁酉(1597)初夏中澣」 <三-朝>

李退溪書抄

*李退溪書抄 10권 10책 村士玉水 編 文化3년(1806)간

文化3년(1806) 岡田寒泉跋 佐嘉古賀撰序. 發行書林: 京都 堀川高邊上 植村藤右衛門. 大阪 心齋橋北 久太郎町 柳原喜兵衛. 江戸 日本橋通 四丁目 鴨 伊兵衛.

「刻李退溪書抄序」余嘗聞朝鮮醇儒 有退溪李先生者. 購求其所著書 獨得邦版自省錄 朱書節要 聖學十圖. 頃歲始得先生文集勝本, 讀之 益嘆其學之純而用功親切 眞可師仰 其謙冲精粹之氣象, 霧然溢於紙墨, 亦足以砥鄙吝驕傲之病 未嘗不愜然改容. 固恨此書之未公諸海內也. 今者 寒泉岡田君, 謀以玉水翁所鑿「李退溪書抄」授梓問序於余, 辭以不敏而不獲允是書之行, 固余之志也則, 不敢終辭. 序之曰 朱子集群賢之大成而斯道之學如日中天 後之學者 要篤信而已矣. 篤信之則 知必致行必力而必有所自得 不用他岐之惑. 先生之生 當明中晚之際, 明人之篤信朱子 而有所得者 敬軒薛子之外 不多見焉. 而先生崛起於箕封 其篤信有得 蓋可亞敬軒 何其偉也. 其他明人之於朱子 大抵 不能篤信而 輕立異說則 雖有得焉者, 寡矣. 及王百安出則詆排朱子, 唱其陽儒陰釋之學, 後有附和紛然, 燭螢燭之微光, 以自絕於日月生心 害政明社以屋矣. 有清代興其於學術也, 頗存兩立之議, 未見廓清之功 猶之 賢不肖竝進則 賢者必退邪正兩立. 雖欲邪說之不熾得乎何則 流俗所便在彼 不在此也. 我泚戈以來, 洛閩之學, 初行鋸儒輩出訓迪 後學使之所向. 但海舶所齎多明清撰著. 是以, 讀者不能無

聽瑩 彼之流弊 或波及於我, 故爲世道人心 慮莫若揭篤信之至論 點紛 彼之異說則 如是書在所 宜速行於世. 此余之所以擊節於君之舉也. 先生之輯節要也, 能得朱子之心. 幸教後學, 今是書 蓋亦倣之. 玉水翁之信先生猶先生之信 朱子先生節要 謂全書之篇帙浩穰 未易究觀 某就求其尤關於學問 而切受用者 表而出之 讀者苟能虛心遜志 耐煩理會則 自然知之其入處. 由是而旁通直上則 沂伊洛而達泗洙 無往而不可. 余於是書亦云.

文化 3年 丙寅(1806) 八月 佐嘉古賀撰撰 (卷首)

- # 「書退溪書抄後」 玉水先生於朱子之道, 無所不究. 於其徒之書, 亦無所不讀. 嘗稱退溪李氏曰「吾得朱子之道於其書矣.」其尊奉之也, 特異於諸子, 卽其全集抄出, 切於學者日用者, 爲十卷 名之曰「退溪書抄」 猶退溪氏有節要之作也. 先生易簣三十年, 于今門人故舊 十喪八九, 從遊惟恕在焉. 傷先生之志湮滅不傳. 梓行以貽學者. 先生村士氏 名宗章, 字幸藏. 玉水其號也. 其先仕於大和筒井氏 筒井氏亡, 移居江戶, 其在時諸候聞其名而多厚禮以聘之者, 皆辭而不就, 以處士終云.

文化六年己巳(1809)九月 岡田恕 識 白景皓書 (卷末).

- *李退溪書抄 10권(년보)1권 조선 李滉撰 村士宗章(玉水)편 文化6(1809)跋刊(伊勢崎藩 信古堂). 同(文化9(1812)印, 江, 鴨伊兵衛等) <長-韓>
*李退溪書抄李滉저 村士玉水편 1811년 岡田寒泉跋刊. 信古堂藏板.
<李-朝>

仁說 조선간본 1650이전 복각 <李-朝>

立齋先生標題詳註音釋十八史略 7권 7책 元 曾先之編 明陳殷音釋·王逢 点校
五山版원본은 明 正統辛酉(1441) 書林余氏刊본임. 이는 조선간본의 覆刻本임. <동·조>.

入學圖說

- *入學圖說 2책 權近撰
「寬永甲戌(1634)八月 書舍道半新刊」

「慶安 원년(1648)十月吉日 安田十兵衛開板」 <柳-日>

*(陽村)入學圖說 前後集各1卷 附三峰先生心氣理篇 1권 조선 權近(附)조선 鄭道傳 寬永11(1634)刊 (中野道半).

* 同(慶安元(1648) 印, 安田十兵衛) <長-韓>

*入學圖說 1책 權近(1352-1409)의 저서로 1390년에 간행, 性理學의 입문서로 기본원리를 그림을 그려 설명한 책 일본에서는 1633년에 句讀点を 가한 것과 1634, 1648년, 그리고 1716-1735)년간의 판각판이 있다. <李-朝>

*入學圖說 1책 <江-書>

*入學圖說 後集 1책 「寬永癸酉(1633)夏六月庚寅 後學 里村遇菴子 三省謹識」

「入學圖說跋」夫一之爲理, 至微哉至妙哉 其一者何 曰形而上之道也 故在乎聲色未判之先而無見其始, 行乎方圓既立之後, 而無見其終, 大而盈乎八紘之外, 本無其外, 孰敢載焉哉, 小而滿乎芒芥之內, 本無其內, 孰敢破焉哉, 沖漠無朕, 萬象已具, 豈以無字字之耶, 元無一物而難窮詰, 豈以有字字之耶, 故周子但曰 無極而太極, 朱子釋之曰 灼見道體, 迥出常情, 不屬有無, 不落方體, 寔可謂千古格論矣, 蓋夫聖人未出, 斯一在乾坤, 聖人已出, 斯一在聖心, 聖心已往, 斯一在六經, 六經者, 聖心之所寓, 而載斯一之大車也, 是故 歷代後學, 竇而祖之, 講而明之, 將以印證我心, 本有之一焉, 雖然 一之体用, 微妙廣大, 難以私心測, 難以小智窺, 不易講明耶, 是以 爲之註脚, 以羽翼之, 彼濂洛關閩諸君子接武並興, 而或作通書, 或作易傳, 且作全書, 或作正蒙, 或作本義, 且作集註, 其所著述, 不可枚舉矣, 其立言命意, 雖各自不同, 蓋皆不過乎羽翼大車, 而發明攸載之一, 欲以教後學, 不難相印證而已矣, 嗚呼, 至矣 一之爲德乎, 予豈敢知斯一哉, 嘗竊從乎久巖老儒, 徒識斯一之名焉耳, 去歲壬申夏, 初親入學圖說末附鄭氏五篇者, 簡帙甚少而攸載甚多, 前集廿四節, 後集十五節, 提要而各圖之, 鈞玄以繫之辭, 其辭愈簡, 而其意愈深, 其圖愈約而其味愈密, 就中至于天人心性, 大學中庸, 特於其圖後, 詳記問答言, 縱橫傍牛, 曲致其意矣, 祭祀宗廟之禮, 最是初學之所疑礙而易惑者, 故於其圖後, 文記問答言, 審述至理, 直斥邪說矣, 若夫鄭氏所作之五篇則 暗闢二氏, 歸之乎吾儒, 洞明禍福, 誠人以安貞, 闢微顯隱, 殆無餘蘊矣, 豈非是書亦羽翼大車, 而發明斯

一之精蘊者耶。誠理學之淵藪，而吾人之裘葛也。於是乎，遂忘鄙拙，漫附臆見，朱墨相雜，而句點之，以與二三同志，討論而講之。噫，以予聾瞽，爲之句點，僭踰之辜，豈可逭哉。雖然，使彼幼稚之未識字者，即此句點而讀之則，未必不爲將來升堂之一助云

嘗寬永癸酉(1633)夏六月 庚寅 後學 里村遇巷子 三省 謹識

自警編 9권

1664년 「新刊自警編」跋에 宋時烈(1607-1689)로 되어 있다. 原著는 宋의 趙善료이다. 일본에서는 1716-1735년간에 各本으로 9책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李-朝>

自省錄

- *自省錄 2책 퇴계 이황저 만치2년(1660)간.
- # 寬文5年乙巳(1665) 三月吉日, 二條通 玉屋町 村上平樂寺開板.
- # 萬治2年己亥(1660)冬十一月 石齋 鷄飼信之訓点. (萬曆13년 乙酉(1585) 羅州牧刊本을 저본으로 한 것임.) <柳-日>
- *(退溪先生)自省錄 2책(無訓点) (朝鮮萬曆13년 羅州刊本) 朝鮮 李滉 (江戶)간<長-韓>
- *(退溪先生)自省錄 2책(附訓本) 朝鮮 李滉撰 鷄飼信之点 寬文5(1665)刊 (京,村上平樂寺勸兵衛) <長-韓>
- *自省錄 1책 李滉의 저술로 1585년 羅州牧에서 開板. 일본은 1650?의 覆刻本과 1660년의 刊記本 및 平樂寺에서 開刊한 것과 1716-1735년간의 後刷本 등 3종이 있다. <李-朝>
- *自省錄 1책 <江-書>
- # 「自省錄跋」 古者言之不出恥躬之不逮也 今與朋友講究往復其言之出 有不得已者 已自不勝其愧矣 況既言之後 有彼不忘而我忘者 有彼與我俱忘者 斯不但可恥 其殆於無忌憚者 可懼之甚也 間搜故篋 手寫書藁之存者 置之几 間時閱而屢省之於是而不替焉 其無藁不錄者 可以在其中矣 不然 雖盡錄諸書 積成卷帙 亦何益哉 嘉靖戊午(1558)端午後一日退溪老人識

字義詳講 조선간본

1650년에 일본서 복간되었다. <李-朝>

剪燈新話句解 4권4책 明 瞿佑著 朝鮮 尹春年訂 林芑句解 慶安元年(1648)刊

慶安元年(1648)十一月吉日 二條通 晴明町 井筒屋六兵衛刊, 嘉靖己未(1559) 垂胡子(林芑)跋과 題註解剪燈新話後 甲子(1564)尹春年の 題가 있음.

元和(1615-1624)간에 古活字本을 再刻한 것이 있음. <柳-日>

* 剪燈新話句解 4권 明 瞿佑(1347-1433)撰 朝鮮 尹春年(滄洲)訂正 朝鮮 林芑(垂胡子)集釋 慶安 元年(1648)간 (漢元和頃刊古活字印本) <長-韓>

* 剪燈新話 <江-書>

省洞五位秘訣 釋晦然(一然)編 延寶8년(1680)간

「延寶八庚申天(1680) 中秋明月後 武野葛西庄 見性寺主 淵龍汚點 京上 銅駝坊書肆村上勘兵衛壽梓」(下卷末)

(重編省洞五位秘訣 跋文); 好玉無玷. 彫文喪德. 予徘徊同州江府萬年山. 請豐之僧 林芳禪人祕顯訣. 盥手拜寫, 而守持年於茲矣. 於旦於莫雖好見此書. 尙未能啖其理味, 空飢矣. 頃依同袍同衣示教. 欲鉸梓止. 抑以此書, 我宗極致也. 往古雖傳聞其號於叢林. 又未見於茲書夥 惜哉. 習鑿齒曰 糝糠在前者乎. 將見鈔我朝種月禪師, 此書兩卷, 而雖抄錄, 彼師之鈔, 前後大略. 才存十一二矣. 疑月師所見, 非元晦然禪師之本乎. 又月與然師時 世如何. 各可尋討也. 自恐, 今雖訓點莫胡, 暗短不能證文字倒 或漏落誤, 而胡亂指點. 且一字一點, 不加私意可知. 乞治聞作者, 高明達士勿訝, 少心現大膽. 冀一一訂矣. 今我所急務者, 只在此書弘通. 若覽人不問或校合, 或點所不及, 而於世流通, 可謂百世洞曹, 千萬世洞曹, 祈禱祈禱.

延寶八庚申天(1680) 中秋明月後 武野葛西庄 見性寺主 淵龍汚點 (卷末)

朝鮮馬書

* 朝鮮馬書 4책 1670 이전에 일본간행. <李-朝>

* 朝鮮馬書 <江-書>

朝鮮賦 1책 明 董越撰 正德2년(1712)刊

이 일본간본은 宇導宮圭齋(字는 三甫 號는 三的. 1695-1724)가 加點. 이
밖에 享保2年, 京都臨川堂, 그리고 寶曆頃 浪華星文堂의 刊本이 있다.
<東-朝>

朝鮮史略 柳希齡撰 1822년에 일본서 繡刻. <李-朝>

朝鮮醫問答 1책 朝鮮尹知微問 明王應遴答 享保5(1720)刊. <長-韓>

朝鮮醫語類集 1책 鈴木裕三撰 1894간

이는 鈴木裕三(海軍軍醫官)이 仁川에서 韓國 醫書慣用語를 모은 소책.
<三-朝>

朝鮮人蓼耕作記 1책 田村元雄撰 明和改元甲申(1764)간

自序: 蓋朝鮮種人參之傳我日本也, 有年於茲. 享保中對州宗候奉台命,
徵之朝鮮, 并百濟 遼東二種十數獻之. 有司奉命 頒種諸武毛二州,
培養得宜. 生繁衍漸傳四方, 今將億兆也. 於是乎, 寶曆癸未(1763)
家君元雄等 固奉台命製之, 至夫人就用之, 起死回生全無異朝鮮產
(후략)寶曆癸未. 明和甲申(1764)의 自跋, 延享戊辰(1748) 藤立
泉의 序, 明和甲申(1764) 福山舜調의 序, 田村善之의 跋은 省略
함 <三-朝>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 20권 20책 退溪 李滉編 관문11년(1671)간

寬文11年辛亥(1671)春二月良日 黑巖慈庵跋「二條通 玉尾町 上村次郎右
衛門刊行」.

「朱子書節要」跋 書曰「辭貴體要」孟子曰「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
夫讀古人之書 而得其要者 固難焉. 擇古人之書而得其要者 尤難焉. 苟非

義理究窮之久 而至於融會貫通之地 其誰能之. 若夫徒以誇多鬪美爲功 則不啻無益, 却使學者 如大軍之無所歸矣. 朱子文集之書 固無所不備. 而講習之精 傳註之蘊, 特見於書翰, 間者 居多焉□則集中之要 而切□□編 又要中之要者 □於□退溪之用心□□謂勤且精矣. 有裨於後學□爲不少矣. 予竊有志乎朱書, 因讀之校之 且訂訓點 以備觀覽云. 寬文十日年 辛亥(1671) 春二月良日 黑岩慈庵跋

「明曆第貳丙申(1656)稔仲冬日 荒木利兵衛尉刊行」 韓國 萬曆 乙亥 (1575)季夏川谷書院重刊本 鵜刻

「寶永6年己丑(1709) 九月良日 黑巖慈庵跋 高麗橋 一町目 伏見屋藤三郎」寬文板과 同一함

「明治 4년 辛未(1871) 再鑄, 龜岡牧命順子校訂」 이 本에는 卷末에 붙는 「退溪先生答李仲久書」가 없음. <柳-日>

*朱子書節要 20권 (萬曆3년(1575)刊本) 조선 李滉編 黑巖壽(慈庵)校 明曆 2, 11刊(覆明, 荒木利兵衛尉) <長-韓>

*朱子書節要 寬文11(1671) 補頭註, 上村次郎右衛門 <長-韓>

*朱子書節要 20권 寶永6(1709)印 江戸, 伏見屋藤三郎. <長-韓>

*朱子書節要 10책 李滉編 일본에서는 1656년 1671년의 官刻板과 1709, 1716, 1830, 1871년의 私家板이 있다. <李-朝>

*朱子書節要 <江-書>

朱子語類 朝鮮刊本 宋 黎靖德編

1650년에 일본서 복간. <李-朝>

朱子行狀

*朱子行狀 1권 1책 宋 黃幹撰 李滉輯注 1665간

寬文乙巳(1665)4月在錢, 正德壬辰(1712)二月正點 平安 二條街 壽文堂藏 板# 寬文5稔乙巳(1665)四月吉旦, 二條通 玉屋町 村上平樂寺板

京都 三條通 堺町 出雲寺松栢堂 刊本

文化元年 甲子(1804)二月 刊本

無刊記 附頭注本 附朱子圖像 <柳-日>

- *朱子行狀(輯注) 1책 朝鮮李滉 寬文5(1665) (覆古活 京, 村上平樂寺)
- # 同 朝鮮李滉 (覆寬文5, 頃, 壽文堂)
- # 同 朝鮮李滉 (正德2(1712)修, 附朱子圖像, 京, 壽文堂)
- # 同 朝鮮李滉 附朱子圖像 文化元(1804)刊(京, 出雲寺 松栢堂) <長-韓>
- *朱子行狀 <江-書>

中庸輯略 1596-1614년간의 慶長版이 있음. <李-朝>

證類本草 25책 宋 唐慎微撰 1775간

이 책은 한국판 『經史證類人觀本草』의 行數 字數 匡郭의 크기도 같다 내용도 동일함. 권수에 艾晟의 原序와 이어서 新刻經史證類本草諸跋(安永乙未(1775)中秋穀旦 江都醫官望草玄) 續刻證類本草序(明和庚寅暮秋秘書林敬識) 續刻證類本草 序(明和己丑年孟春江都醫官 望三英)의 三序跋과 권말에 書肆刊記가 있다. <三-朝>

陣法抄 1 책 문종명편 1702년간

文宗(1414-1452)의 命編으로 首陽君이 1492년에 간행, 部隊編制와 用兵術 및 軍士訓練의 基本을 밝힌 教範書. 일본에서는 1702년 이전의 翻각본이 있으며 原書인 「陣法圖書」의 本注를 倭字로 譯하여 간행하라는 將軍의 명을 받고 만들었다. <李-朝>

*陣法 <江-書>

懲愆錄

- *懲愆錄 4권 4책 朝鮮 柳成龍 著 「元祿8년 乙亥(1695),京二條通 大和屋伊兵衛寫板」 出雲寺松栢堂刊
- # 「懲愆錄本序」: 懲愆錄者何. 記亂後事也. 其在亂前者, 往往亦記所以本其始也. 嗚呼, 壬辰之禍, 慘矣. 浹旬之間, 三都失守, 八方瓦解, 乘輿播越, 其得有今日天也, 亦由祖宗仁厚之澤, 固結於民而思漢之心, 未已. 聖上事天之誠, 感動皇極而存刑之師, 累出. 不然則 殆矣. 詩曰 「予其懲而愆後患」. 此懲愆錄所以作也. 若余者, 以無似受國, 重任於流離板蕩之際. 危不持顛不扶, 罪死無赦尙視息田畝間. 苟延性命 豈非寬典. 憂悖稍定, 每念

前日事。未嘗不愧靡容。乃於閑中粗述其耳目所逮者。自壬辰至戊戌。總若干(干)言。因以狀啓疏文移及雜錄。附其後。雖無可觀者。亦皆當日事跡。故不能去。既以寓歎歎倦願忠之意。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 # 「懲愆錄序」：傳曰。用兵有五。曰義兵。曰應兵。曰貪兵。曰驕兵。曰忿兵。五之中。義兵與應兵。君子之所用也。傳又曰。國雖大好戰必亡。天下雖安。忘戰則必危。好與忘二者。可以不戒乎哉。曩昔豐臣氏之伐朝鮮也。可謂貪兵兼驕與忿。不可為義兵。又非不得已而用之者。所謂好戰者也。是天道之所惡。其終亡者。固其所也。韓人之脆弱而速敗瓦解土崩者。緣教養無素。守禦失道。故不能用應兵。是所謂忘戰者也。嗚呼。朝鮮之國勢危殆而幾亡者。識此而矣已哉。柳相國之作懲愆錄也。是觀前車而戒後車之意也。此書記事簡要。為辭質直。非世之著書者。跨多闢靡之比談朝鮮戰伐之事者。可以是為的據。其他如朝鮮征伐記。雖書以國字。亦足以為□證。二書實可稱實錄也。予近者偶客乎京師書坊之輩。刊此書於梓。既成屬序於予。予美此書之布行于世。故本茲編之所由作。而論著之者。如是。只恐見笑於大方之家已矣。

元祿乙亥(1695) 芒種 後學 筑前列貝原篤信序(印)

- * 懲愆錄 4권 朝鮮 柳成龍 元祿 8(1695)刊 (京, 大和屋 伊兵衛) <長-韓>
- * 懲愆錄 4권 書屋 柳成龍(1542-1607) 저. 壬辰亂 중 7년간의 事實을 기술한 手記. 일본에서는 1695년 京都版과 1716-1735년간의 官刻板이 있다. <李-朝>
- * 懲愆錄 <江-書>

天命圖說

- * 天命圖說 1권 1책 朝鮮 鄭之雲 李滉 共撰 景安4년(1646)간.
- # 慶安4曆(1646) 孟春 中野小左衛門, 元和辛酉(1621) 林羅山跋
- # (卷末跋文) 右天命舊新圖說者 朝鮮鄭秋巒李退谿之所作也。其論性理氣質。皆雖為中國儒先之餘言。然不戾於正而有可觀者。余家藏此本。久矣。一日視於惺齋。惺齋曰。四端出於理。七情出於氣。此說是也。比諸困知記所云。則為此善於彼。□者趙松雪見新羅沙門金生書蹟。題其后曰。何地不生才。信哉。今余亦於此圖說云。尔乎。頃者村上信生。就余乞贖之。於是書以寄之。元和辛酉(1621)孟夏日 羅山人道春跋「慶安四曆孟春 中野小左衛門」(卷末)

- *天命圖說 1책 朝鮮 鄭之雲 撰 李滉訂補 林羅山点 正保3(1646) 刊 (京, 風月宗智)
- *天命圖說 1책 慶安 四(1646), 正印, 中野小左衛門 <長-韓>
- *天命圖說 1책 鄭之雲(1509-1561)이 天命을 圖說한 책으로 退溪의 校閱을 받아 간행. 일본에는 林羅山이 跋文을 쓴 1651년의 私家版으로 書肆에서 覆刊. <李-朝>
- *天命圖說 1책 <江-書>

千字文 1책 梁周興嗣撰 韓渡書 延寶3年(1674)刊

일찍 對馬島에 전해져서 元和8年(1622) 梅庵立意 識語가 붙은 것을 延寶3年에 江戸에서 복각.

- *千字文 1책 (朝鮮 韓渡書 萬曆中刊本)(諺文入) 梁 周興嗣撰 朝鮮 韓渡書延寶三(1675)刊 <長-韓>
- *千字文 1책 石峰 韓渡(1543-1605)가 副司果로 있을 때 宣祖의 명을 받아 1578년에 간행. 일본서는 1674년에 江戸에서 鐫刻된 것과 1716-1735년간의 官刻本이 있다. <李-朝>
- *千字文 1책 <江-書>

千字類合 1책 著者未詳 貝原篤信編 元祿5年(1692)刊

類合은 中宗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나 作者는 未詳이다. 字數 1512字 卽柳希春의 增補類合 이전의 舊本에 의해 만들어진 것. 篤信은 文字의 次序는 그대로 하고 24類로 나누고 題目을 붙였음. 內扉; 「朝鮮國正本 千字類合 浪華書林醉墨齋藏板」

千字類合敍: 梁周興嗣之千文出而後 歷世之學字者 必先誦讀之 學者之習信 既尙矣. 迄本邦亦然 今願其爲書 雖援據于故事 不切近于世用 且不列於品彙 不分於部類 故於兒童之記習也 可謂闕事情而乖時宜也. 頃偶觀韓人所輯千字類合 其所編錄 皆是民生日用之文字 而自乾坤之物態 各以類相合 凡小兒輩學書習字者 所宜先記誦而可謂當務之急也. 世間不可闕斯書 在易有之曰 方以類聚 物以群分者 於此編乎正視之 然 其爲書也 雖品物既列 題名未立故 讀者不能無憾焉. 予於是自不揣僭 率因循乎舊本所

在之序次 特區別其品彙而爲二十四類 揭標乎題名於各類之上 且書此編之所以切于民用 弁其首云爾. 元祿壬申(1692)復月初吉 筑前後學 貝原篤信題于浪速港口舟中 (印)

天台四教儀 1책 高麗 諦觀錄 寬永丙寅(1626)간

「寬永三丙寅(1626) 九月吉日於洛陽本國寺之內開板」

高麗 諦觀이 지은 이天台四教儀는 일찍 일본으로 들어가 應永26年(1419)에 간행되었는데, 그 卷末에 다음과 같은 刊記가 있다.

#卷末刊記; 高麗觀師四教儀 其文約 其義豐. 天梯妙句 罄無不盡 本朝版行 既久 然未見列段 分科之者 不能無憾. 丹州比丘芳偶獲科本 命工鑲版 捨常樂菴莊嚴聖一國師 品位所冀 文義無礙 禪教雙忘一心之玄門 證三德之秘藏. 應永己亥(1419)春王正月 前天龍岐陽方秀謹志.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에서 再引>

*天台四教義 1책 <江-書>

七先生遺像贊

*七先生遺像贊 1책 宋 朱熹撰 朝鮮李滉書 寬文九(1669)刊 (木本氏吉本氏)<長-韓>

*七先生遺像贊 宋, 朱熹撰 李滉書 일본서는 1669년 吉林書林에서 간행하였다. <李-朝>

鍼灸經驗方 3책 許任撰 1725간

許任이 편찬한 이 鍼灸經驗方의 일본판은 大坂의 醫員 山川淳菴의 藏板本이며 享保10乙巳(1725)11月大坂吳服町書林岡田三郎右衛門에 의해 간행.

朝鮮國鍼灸經驗方序; 『鍼灸經驗方』朝鮮國名醫許任之所著 而其國首相 金氏命以銀梓 布之于四方 使國人識鍼灸之要 所以助仁濟之道之書也. 予少時曾遊學於朝鮮 稱習之 余間接醫人 數聽說鍼灸爲醫家之要 又行見鍼灸醫病其效最捷 就扣其所用之方法 則壹是皆因『許氏經驗方』(중략) 今茲以予所韞之『許氏經驗方』投之于朝剛氏 散之于四方 與好生諸君子共之可見 金·許二賢之美遐溢吳城 令名不與草木朽 遺澤與天地之等壽

(하락) 享保10年歲在乙巳(1725)暮春三月 山川淳菴書」 <三-朝>

標題句解孔子家語 6권3책 元 王廣謀句解 慶長4년(1599) 活字刊.

所謂 伏見版의 嘴矢. 卷末 三要(元估)의 刊語는 뒷날 補寫. 이 책은 본래 明의 覆元, 延祐4년(1317)간본 조선각본을 바탕으로 한 것. 이 책의 刊行 跋에 「慶長第四龍集己亥中夏吉辰, 前學校三要野衲於城南伏見里書焉 慈眼刊之」라는 기록이 있다. <東-朝>

標題註疏小學集成 10권5책 宋朱熹撰 萬治元年(1658)刊.

이 책은 世宗18년 간행의 鑄字本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 卷末에 永樂元年權近, 永樂20年下季良, 宣德9年金鑑의 鑄字跋과 宣德4年鄭麟趾, 正統元年金汶의 刊行跋文이 붙어 있음. 「萬治元年戊戌中秋吉旦 風月庄左衛門新刊」

漂海錄

*通俗漂海錄 4권 조선 崔溥撰 清絢譯考 寬政七(1796)刊 <長-韓>

* 漂海錄 3 崔溥(1454-1504) 奉命撰 1487 年 濟州 敬差官으로 있다가 親喪을 당하여 돌아오다가 漂流, 中國을 통하여 半年만에 돌아와 王命으로 撰上된 漂流體驗實錄. 일본에서 1769년 「唐土行程記」로 改題하여 翻譯 간행하고, 또 1764-1800년간에 翻刻 간행하였다. <李-朝>

許魯齋先生心法 1책 (元)許衡撰 (明)韓士奇校 # 「元祿四年辛未(1691)八月之吉, 京東洞通 夷川上町 林九兵衛壽梓」 韓國本 翻刻임. <柳-日>

賢首諸乘法數 11권 2책 (明)行深輯 寬政12년(1800)刊

燕山君 6년(1500) 海印寺 老衲燈谷의 跋文이 있는 伽倻山 栖鳳寺刊本の 覆刻本인데 이는 貞享二年(1685) 일본刊本の 重刊임. 「京都三條通 富小路東江八町弘簡堂升屋勸兵衛板」 <東-朝>

刑經 朝鮮刊本 1650년 일본서 복각. <李-朝>

V. 餘 言

이는 어디까지나 본격연구를 위한 탐색작업의 성격으로 만든 것이기에 이 목록이 완성되는 대로 개별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시대별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끝으로 1981년부터 오늘까지 십수년 동안 이 목록을 작성하는데 격의없이 나를 도와준 일본 富山大學 藤本幸夫 教授, 慶應大學 斯道文庫 尾崎 康 教授, 그리고 內閣文庫 長澤孝三先生 天理大學 圖書館 金子和正 先生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參考文獻〉

- * 『國書總目錄』 8책 岩波書店 發行 昭和 41
- * 『慶長以來書寶集覽』 井上和雄編 高尾書店刊 昭和 45 增補
- * 『徳川時代出版者出版物集覽』 矢島玄亮 著 萬葉堂書店 刊 昭和 51.
- * 『享保以後板元別書籍目錄』 坂本宗子 著 清文堂 刊 昭和 57.
- *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 慶應義塾大學 斯道文庫 編 同 大學刊 1962 비매품
- * 『近世書林板元總覽』 日本書誌學大系14 青裳堂書店 刊 昭和 56
- * 『江戸時代出版書目』 新訂版 朝倉治彦 大和博幸 編 臨川書店 平成 5
- * 『제43회 朝鮮關係文獻展示目錄』 일본 東洋文庫 昭和 33년 10월
- * 『內閣文庫所藏資料林羅山展』 일본 國立公文書館 昭和 58년 5월
- * 『內閣文庫創立100周年記念 內閣文庫貴重書展』 일본 國立公文書館 昭和 60년 5월
- * 『廣島市立中央圖書館開館記念 淺野文庫貴重資料展解説目錄』 廣島市立中央圖書館 昭和 49년 10월.
- * 『蓬左文庫朝鮮本展觀目錄』 朝鮮學會 主催 昭和 32년 10월 於名古屋 徳川美術館
- * 『朝鮮通信使來朝歸帆官錄』 石阪孝二郎 編 東京 明石書店刊 1992
- * 『朝鮮醫書誌』 三木 榮 著 日 學術圖書刊行會 刊 1973
- * 『日本古印刷文化史』 木宮泰彦 著 日, 富山房 刊 昭和 40 再版

- * 『日本出版文化史』岡野他家夫 著 日, 原書房 1981
- * 『國立中央圖書館所藏 外國古書目錄』일본편 韓國 國立中央圖書館 1978
- * 『朝鮮時代日本과 書籍交流研究』李 俊杰 著 弘益齋 刊 1986